



독서도 공부다

WRITER



민태운 교육 전문가
『국어 1등급의 비밀』 저자
前 교육과정평가원 수능국어 출제 검토위원

독서, 왜 필요한가?

독서는 잠들어 있던 정신을 일깨우고 사유의 지평을 확장하게 도와주는 장거리 정신 여행이다. 이 여행을 통해 자아와 세계와의 교감, 삶의 비전 발견, 세계관 형성이 가능하다. 아울러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어릴 적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책 읽을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고,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었다.

- 빌게이츠

세계적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는 오늘날 자신을 있게 한 배경으로 꾸준한 독서를 꼽는다. 묘목이 자라 큰 나무가 되듯 독서는 자녀의 정서적 성장에 꼭 필요한 자양분이다. 이런 점에서 자녀가 꾸준히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어린 시절 독서 습관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속적 독서 유도 방법

첫째, 독서 감성을 자극하자

둘째, 새로운 것에 대한 삶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자

셋째, 독서하는 아이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자

넷째, 아이들과 함께 독서하자

다섯째,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책을 고르게 하자

자녀의 꾸준한 독서를 위해서는 독서를 독려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집중력을 저해하는 각종 전자기기 사용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초등 시기부터 특정 교과목 선행 학습에 과도한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줘야 한다. 취학 전에는 부모가 주체적으로 독서를 선정해 주고, 취학 후에는 자녀 스스로 책을 선정하도록 지혜롭게 이끌어줘야 한다. 독서와 공부가 별개의 개념이 아님을 이해시키는 한편, 자녀의 독서 의욕을 떨어뜨려선 안 된다.

자녀의 꾸준한 독서를 위해 교과목과 관련된 도서를 선정해 읽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교과서 내용과 연계된 독서를 지속한다는 사실이다. 성적이 잘 나와야 공부 의욕도 생기고 그로 인해 독서 습관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교과목과 연계된 독서는 학교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이 자녀의 바른 독서 습관을 만드는 동력이다.

